



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
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
실시되었습니다.



장마철에 비가 오다 말다, 폭염은 왜? 장마 맞아요?



비가 오다 안 오다, 장마철

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의 경계면에 정체전선이 형성되면 장마라 하는데요.
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지역이 달라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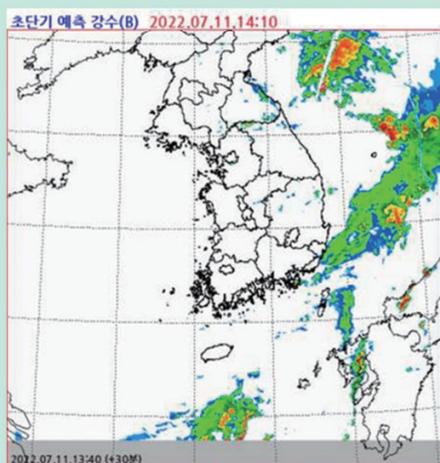
장맛비 vs 폭염 둘 다 있어요

장마철에 비만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.
남북 폭이 좁은 정체전선이 북으로 올라가면 남쪽은 폭염,
남으로 내려오면 남쪽 비, 북쪽 폭염이 나타날 수 있어요.



강한 비와 무더위를 같이 대비

정체전선 외 대기 불안정, 저기압 등 영향으로 천둥·번개를 동반한
국지성 호우가 잦아졌어요. 가까운 곳이라도 강수 유무, 강수량이 달라,
날씨알리미 앱의 실황을 반영한 강수예측 영상을 보고 대비해주세요.



또, 비가 내려 기온이
일시적으로 떨어질 뿐
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높아 무더워요.
온열질환도 주의해주세요.

